
신라 지방 고충의 殯葬 가능성

- 경산 임당 고충의 사례 -

김 대 욱*

목 차

- I. 머리말
 - II. 고대 殯葬에 관한 연구사 검토
 - III. 경산 임당 고충에서 확인된 殯葬의 가능성
 - IV. 殯의 목적과 殯殿의 위치
 - V. 맺음말
-

* 영남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접수일: 2020.8.29. 심사완료일: 2020.11.12. 게재확정일: 2020.11.12.

국문요약

이 논문은 경산 임당 고총에서 확인된 인골 매장양상을 통해 신라 지방 고총에서 殯葬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논문이다. 필자는 앞서 경산 조영EⅡ-2호분의 인골 매장 양상을 통해 주피장자와 순장자를 구분하고 주피장자에게 빈장이 시행되었음을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 결과가 아주 특이한 사례 중 하나일 수 있어 임당 고총 내에 또 다른 사례를 찾아 다수의 고총에서 동일한 매장양상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빈장의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에는 다수의 고총이 축조되었는데, 최근 이 인골에 대한 형질인류학적 전수조사를 마쳤고 관련한 고고학적 정보를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피장자의 위치나 두향 등 인골 매장과 유물 부장양상을 통해 주피장자와 순장자를 구분하였다. 즉 주피장자는 주로 남(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금동관, 경식, 금동제태환이식, 은제과대, 은제지환, 금동제식리 등 각종 복식유물과 함께 매장되었으며, 순장자는 주로 그 옆이나 반대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이식, 도자 등을 착장하였다. 그러나 주피장자와 순장자들이 동일한 시점과 환경에 매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피장자의 인골이 순장자들의 인골보다 훨씬 심하게 부식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주피장자가 무덤 내에 묻히기 전에 일정 기간동안 殯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의 빈은 死者를 소생시키거나 죽음 또는 시신에 대한 공포에서 사자와 단절하기 위한 심리적·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무덤에 부장되거나 의례에 소요되는 부장품과 음식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임당 고총의 빈전은 임당 토성 내부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Ⅰ 주제어 Ⅰ

임당 고총, 인골, 주피장자, 순장자, 殯, 殯殿

I. 머리말

1980년대 경산 임당 고총에서 인골이 처음 발굴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야 그 성과가 학계에 소개되기 시작했다(김용성 2002; 이준정 외 2008; 하대룡 2011). 그러던 중 이 인골을 소장한 영남대학교박물관과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인류학과·해부학교실 등에서 〈한반도 고고 유적 출토 인골 자료에 대한 형태적·병리적·유전적 기초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프로젝트로 이 임당 인골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계측, 병리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자료집(영남대학교박물관 2013)으로 소개할 수 있었다. 또 최근에는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지원으로 영남대학교박물관에 보관된 259개체의 인골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분석(영남대학교박물관 2019)을 진행할 수 있었고, DNA 분석, 얼굴복원 등 고고학 외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인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전고(2018)에서 경산 조영EⅡ-2호분의 사례를 통해 주피장자와 순장자들이 동일한 시점에 같은 무덤 내부에 매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피장자의 인골이 순장자들의 인골보다 훨씬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주피장자가 죽은 후에 매장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동안 殯을 지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임당 고총 내에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殯葬이 조영EⅡ-2호분이라는 아주 특수한 무덤의 특이한 사례가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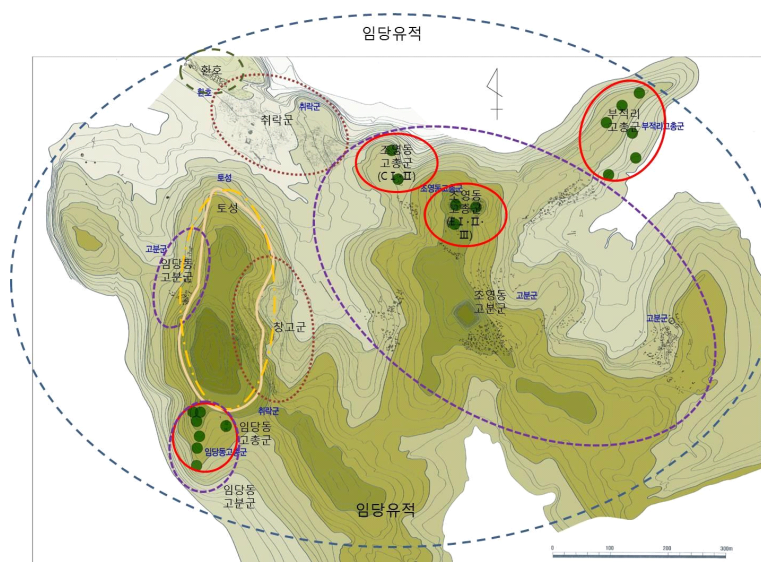


그림 1. 임당유적 유구 분포도

먼저 본고에 사용되는 임당유적이라 함은 사적 제516호로 지정된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을 비롯한 취락유적과 토성, 환호 등 이 구릉 전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임당유적 중 임당동고분군, 조영동고분군, 부적리고분군 내에 위치한 고총을 가리키는 용어로 임당 고총을 사용하였다(김대욱 2014: p.7-11).

II. 고대 殯葬에 관한 연구사 검토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도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이 혼백으로 이루어졌다는 영혼관(巫鴻(김병준 역) 2001; 楊寬(장인성·임대희 역) 2005; 黃曉芬(김용성 역) 2006)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과 똑같지는 않았다(나희라 2008; 권오영 2000; 채미하 2012). 이는 고대 국가마다 각기 다른 상장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殯殿 의례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왕위를 잇는 의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정중수 1994) 후계자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빈의 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하는(和田萃 1995) 등 상장례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殯’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殯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죽어서 매장할 때까지 시신을 관에 斂해 두는 것’이며 고대 일본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매장할 때까지 작은 집 안에 가매장하는 장제’라고 한다(和田萃 1995).

빈에 관한 가장 대표적 논쟁은 무령왕릉에서 왕과 왕비의 墓誌와 買地券이 발견되고 무령왕비의 殯殿으로 추정되는 정지산유적이 발굴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령왕릉의 묘지석에서 상장례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점은 왕과 왕비가 사망한 후 27개월, 3년상을 치렀다는 점이다.

중국사서 『주서』에는 백제의 상장제에 대해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그 나머지 친척에게는 장례가 끝나면 바로 복을 벗게 하였다”¹⁾고 했다. 또 『수서』 고구려조에는 “사람이 죽으면 집 안에 안치하여 두었다가 3년이 지난 뒤에 좋은 날을 가려 장사를 지낸다. 부모 및 남편의 服은 모두 3년을 입고 형제(의 경우)는 3개월을 입는다”²⁾고 했다. 이러한 문헌기록을 통해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모두 3년상을 치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령왕릉의 지석으로 백제의 3년상이 실증되었다. 하지만 무령왕과 왕비의 시신은 殯殿에

1) 父母及夫死者，三年治服，餘親；則葬訖除之。(『周書』卷四十九 列傳第四十一 異域上 百濟)

2) 死者殯於屋內，經三年，擇吉日而葬，居父母及夫喪，服皆三年，兄弟三月。(『隋書』卷八十一 列傳第四十六 東夷 高麗)

임시로 모셔두는 ‘殯葬 27개월’을 거친 다음 현재의 무령왕릉에 안치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 기간은 사망 후 무덤에 매장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보았다(이병호 2017b).

그리고 공주 정지산유적의 발굴은 6세기 백제 왕실에서 殯을 행한 결정적인 자료로 간주되었다. 먼저 구릉 정상부 중앙에 기와 건축물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 벽주 건물 3기가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유구의 측면에서 건물지의 축조 계획성이 있으나 일상용의 건물이 아니라 존속기간이 짧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특수한 시설이라는 점, 이를 목책열로 둘러 공간을 구분하였다는 점, 삼족토기 등 제사 관련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는 점, 얼음을 저장하던 빙고와 물을 저장하던 저수시설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무령왕릉이 일직선상에 배치된 점 등으로 보아 이 일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 그 중에서도 특히 ‘무령왕릉의 殯殿’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국립공주박물관 1999; 김길식 2001·2002; 이한상 2012).

이렇듯 정지산유적의 발굴은 무령왕릉 묘지석과 매지권 등과 함께 백제를 비롯한 고대상장례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정지산유적 내 유구 조성의 시기적 문제, 공산성-정지산-무령왕릉 간의 접근성 문제, 출토유물의 빈약성 등으로 이 유적을 빈전으로 보는 데에 비판도 있었다(이남석 1999). 또한 벽주 건물지나 빙고만으로 정지산유적에 특수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남석·이현숙 2016)이 강조되거나, 정지산유적 출토 기와를 통해 기와 건물지의 존속기간에 대한 의문(이병호 2017a)이 제기되었다.

결국 이병호(2017b)는 정지산유적, 『수서』의 백제전과 고구려전, 무령왕비 지석에 관한 재검토 결과 정지산유적에서 殯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왕비가 왕궁인 공산성에서 죽은 다음 정지산유적에 가매장되었다가 27개월 뒤에 무령왕릉으로 묻혔다는 2차장이나 백제 왕실의 27개월 빈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무령왕과 왕비의 장례가 3년상(27개월)이 적용된 유교적 상장례였기 때문에 빈전 의례를 포함한 禪祭까지 실시된 ‘服喪 기간’으로 보았다. 또한 정지산유적의 입지나 건물의 배치가 부여 청산성 일대의 상황과 비슷한 점을 들어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국가시설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앞선 기록에서 보듯이 고구려와 백제가 모두 3년 상을 치렀다고 할 수 있는데 반해 신라는 『북사』와 『수서』 기록에 “사람이 죽으면 斂襲하여 棺에 넣고, 시체를 땅에 묻고는 봉분을 세운다. 王과 부모 처자의 喪에는 1년간 服을 입는다”³⁾고 하여 빈의 기간이 1년임을 알 수 있다⁴⁾. 따라서 신라에서 1년 정도 빈이 시행되었다면 신라의 지배권 아래 있는 지방에

3) 死有棺斂, 葬送起墳陵. 王及父母妻子喪, 居服一年. (『北史』卷九十四 列傳第八十二 新羅)

死有棺斂, 葬起墳陵. 王及父母妻子喪, 持服一年. (『北史』卷八十一 列傳第四十六 東夷 新羅)

서도 그 기간을 추산할 수는 없지만 일정기간 동안 빈이 행하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최근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파리 유체의 법의곤충학적 분석을 통해 빈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영산강유역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의 1호 석실(목관 3) 내에서 화려하고 완벽한 상태의 금동신발이 발견되었는데 이 금동신발의 서편 바닥과 동편 인골 부위(발뒤꿈치)에서 십여 개의 파리 유체(파리 번데기껍질)가 함께 출토되었다(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이에 관한 학제간 융합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장자는 사망 직후 바로 매장되지 않았고 파리의 접근이 허용되어 산란할 수 있을 정도로 노출되었다. 그리고 이 시신에서 자란 파리 번데기껍질은 금동신발의 부식과정에서 금속염에 의해 유기물질이 무기물질로 대체되는 무기질 침착 현상이 일어나 경화되었고 금동신발에 의해 물리적으로 보호를 받아 그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파리 번데기껍질의 중은 현재의 5월에서 9월(대략 $21.9 \pm 5^{\circ}\text{C}$)을 지나 11월까지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피장자는 파리가 산란한 뒤 최소한 파리 번데기가 되거나 성충으로 우화한 뒤 번데기껍질의 상태로 함께 매장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정촌고분의 금동신발 내에서 파리 번데기껍질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피장자가 사망 직후 바로 고분에 매장되지 않고 파리가 시신에 충분히 접근하고 산란할 수 있는 계절과 장소에서 금동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최소 약 5.5~6.5일 이상 노출된 후 고분 안으로 매장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당시의 장례 절차와 매장 과정에서 곤충이 우연히 매장되었지만 1,500년 전 빈이 시행되었다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신상언 2017: p.626-638).

이러한 연구 배경 아래 임당 고총에서 확인된 인골의 출토 사례를 통해 고대 고구려와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 또는 신라의 지방 사회에도 빈이 시행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빈의 시행은 고대 사회 葬制를 인식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이렇듯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에서 빈의 기간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무덤의 축조 방법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고구려는 적석총, 백제는 횡혈식석실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둘은 무덤을 다 축조하고 난 다음에 주피장자가 매장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신라는 적석목곽(묘)분을 축조하므로 봉토의 기저부 일부만 조성하고 파 내려간 다음, 무덤에 주피장자를 매장하고 그 위에 적석과 봉토를 씌우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각 분묘들 간에는 무덤 축조 과정에 있어 주피장자의 매장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빈의 기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한다. 즉 무덤의 구조나 축조 방식이 빈의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Ⅲ. 경산 임당 고총에서 확인된 殯葬의 가능성

인골 속에는 죽은 인물의 나이와 성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뼈의 길이와 두께를 통해 몸 크기와 힘을 추정할 수 있으며, 뼈 속에는 질환과 질병의 증거가 새겨져 있다. 따라서 인골 분석을 통해 사망 연령, 사망 원인, 성, 병력 혹은 사고 이력, 직업, 영양 상태 등을 판정할 수 있다(T.더글라스 프라이스(이희준 옮김) 2013: p.441-481). 또한 고고학 자료와 연관지어 당시 사회의 풍습, 사회 계층, 경제 활동, 식생활 등 사회상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강소영·지상현 2012: p.14).

현재 임당지역 고분군에서는 500여 구의 인골이 확인된 것으로 추산⁵⁾되며 이 인골을 분석하여 주피장자 및 순장자의 연령이나 性 판별뿐만 아니라 인골의 병리학적 특징 파악, 인골 집단의 특수성, DNA 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영남대학교박물관 2013; 坂本稔 2014; 김대옥 2013·2015; 우은진·정양승 2015; Hyunwoo Jung·Eun Jin Woo 2016; 우은진·정현우 2016; 김대옥 2018·2019; 우은진 2019; 정충원 2019; 영남대학교박물관 2019 등). 이 중에서 임당 고총에서 출토된 인골 현황을 중심으로 주피장자의 인골과 순장자의 인골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찾아보았다⁶⁾.

1. 조영CⅡ-1호분(영남대학교박물관 1999·2019)

조영CⅡ호분 내에 축조된 1호분과 2호분 중 후축된 조영CⅡ-2호는 이혈묘광 昌자형 주부곽식이다. 주곽과 부곽은 모두 암광목곽묘로 축조되었다. 주곽 내부에서는 3인의 피장자 인골이 확인되었다. 3구의 피장자 가운데 1구(제1번 피장자)는 두개골흔과 양 다리뼈들이 비교적 정연하게 노출되었으나 나머지 2구(제2·3피장자)는 목곽의 부식 후 積石段의 흘러내림과 개석의 함몰에 인한 충격으로 뒤섞인 채 출토되었다. 이 중 제1번 피장자는 머리를 목곽의 남동단벽에서 1/3정도의 지점에 두고 伸展葬되었고, 제2번 피장자는 머리를 목곽의 서쪽 모서

5) 영남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임당동고총군(1982년), 조영동고총군(1988년), 조영동고분군(1989~1990년)에서 출토되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259개체, 영남문화재연구원의 발굴(1995~1996년)에서 86개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발굴(1995~1997년)에서 157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최근 중소 규모의 발굴을 통해서도 인골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6) 인골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사례를 찾는 과정에서 한 공간 내에 주피장자와 순장자가 매장되었고, 도굴 등으로 매장주체부가 심하게 파괴되지 않았던 경우에 한정하다 보니 그 사례가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논지를 전개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골에 대한 고고학적 분석은 발굴자의 견해를 따랐으며 성과 연령 등 체질인류학적 분석은 우은진(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의 의견(영남대학교박물관 2016·2019)임을 밝혀 둔다.

리 부근에 두고 있었으며, 제3번 피장자는 머리를 목곽의 북쪽 모서리에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배치상태와 그 인골들이 착장하고 있는 유물들의 상태로 보아 제1번 피장자가 주피장자이고, 제2·3번 피장자들은 순장자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인골 분석과정에서 주곽에는 4개체의 인골이 확인되어 주피장자 외의 3명이 순장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피장자(1번)는 남성적이며 36~50세 정도로 추정된다. 주곽에 순장된 3개체(2번~4번)의 인골 중 16~18세가 1개체, 나머지는 10세 전후로 추정되며 이들의 정확한 출토위치는 알 수 없었다.



사진 1. 조영CII-1호 주곽 인골 사진 2. 조영CII-1호 부곽 인골 매장 양상
매장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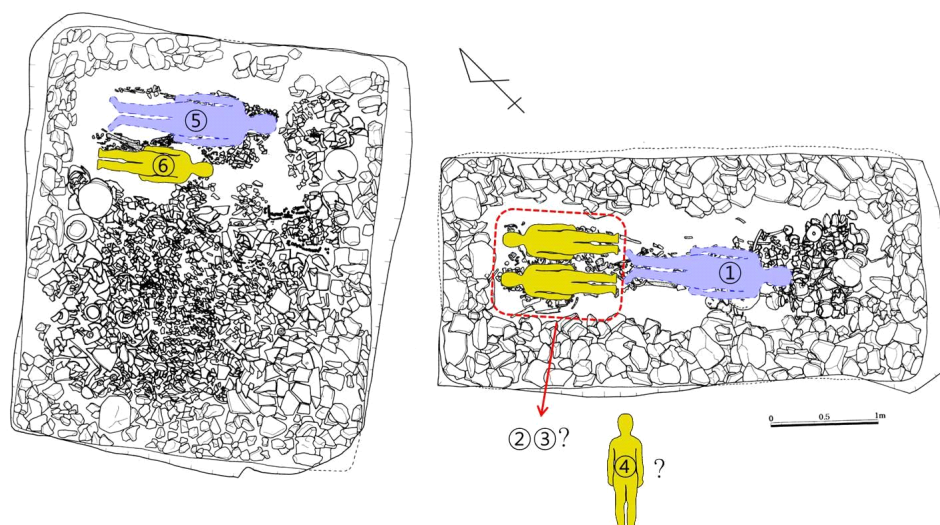


그림 2. 조영CII-1호 인골 매장 양상(모식도)

부곽에서는 2구의 인골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역시 순장자로 판단되는데, 곽의 북동편에 머리를 동남으로 하여 나란히 누워 있었으나 부곽의 함몰로 인한 충격으로 많이 흐트러져 노출되었다. 노출 상태로 보아 순장자는 목곽의 동북벽에 접해 그 벽과 나란히 누워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북쪽에 매장된 순장자(5번)는 남성적이며 36~50세 정도로 추정되고, 남쪽에 매장된 순장자(6번)는 10세 전후의 어린아이로 추정된다.

1번 인골의 경우 주피장자로 보았는데, 하악골 치아가 생전에 결실되었고 양 대퇴골의 하단부에는 퇴행성 관절염 흔적이 잘 남아있어 많은 나이까지 살았음을 방증하고 있다. 하지만 인골은 전체적으로 50% 이상 손실된 부분이 많았다. 주곽 순장자 중 2번 인골의 경우 16~18세 정도의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상완골이 거의 100% 잔존하고 있고 몸통골과 하지골도 50% 이상 남아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3번 순장자의 경우는 10세 전후로 2번보다 더 어린아이지만 상악과 몸통골 중 50% 이상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곽 순장자의 경우에는 발굴 당시 인골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남아있는 편이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곽 주피장자와 순장자들의 인골 잔존 상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주피장자의 경우 나이가 많은 성인 남성이고 순장자들의 경우 어린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피장자의 인골의 부식이 훨씬 더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조영EⅢ-2호분(경산시립박물관 2011; 영남대학교박물관 2012·2019)

조영EⅢ호분은 조영EⅢ-2호와 3호, 그리고 4호가 연결된 삼봉형의 봉토를 가진 것으로 5세기 1/4분기에서 2/4분기에 걸쳐 축조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축조된 조영EⅢ-2호는 이혈묘광 昌자형 주부곽식으로 주곽은 수혈식석곽묘로 축조되었다. 주곽에서는 3개체의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주피장자(1번)는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성별과 연령은 추정할 수 없었다. 주곽 내에는 2개체의 순장자가 확인되었는데 2개체 모두 주피장자의 발치 쪽에 위치하며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 중 북쪽 순장자(2번)는 남성으로 21~35세 정도이며 남쪽 순장자(3번)는 6~12세 정도의 어린아이로 추정된다.

부곽에서 인골은 유물이 부장되지 않은 빈 공간에 2구가 나란하게 부장되었는데, 머리는 모두 주곽이 배치된 동쪽을 향하고 있었고 다리는 서쪽으로 두고 나란하게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남쪽에 위치한 순장자(4번)는 여성으로 21~35세 정도이며 북쪽에 위치한 순장자(5번)는 남성적이며 21~35세 정도로 추정된다.



사진 3. 조영티III-2호 주곽 인골 매장 양상



사진 4. 조영티III-2호 부곽 인골 매장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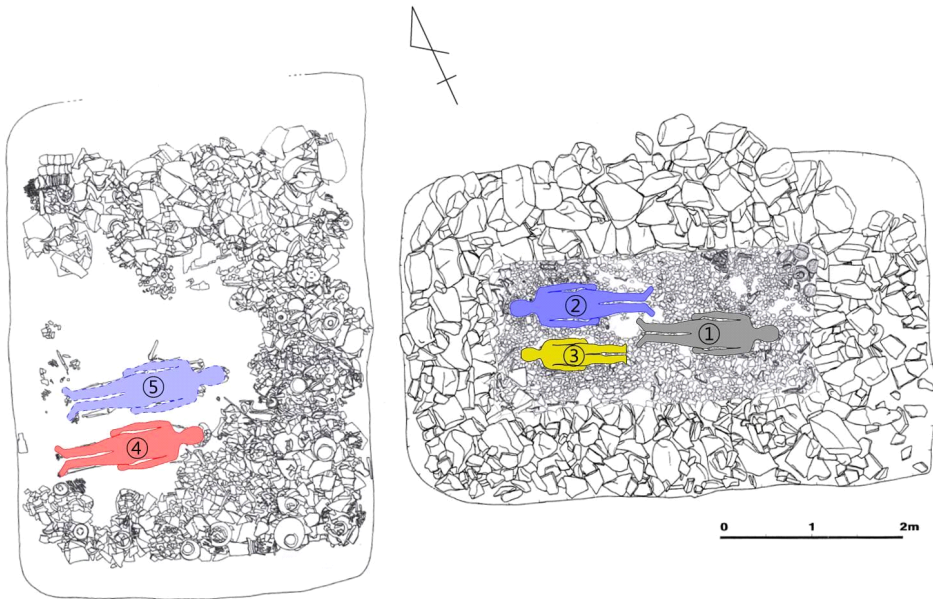


그림 3. 조영티III-2호 인골 매장 양상(모식도)

주곽은 도굴로 인해 상당히 파괴된 상태여서 인골의 상황에 큰 변수가 있다. 하지만, 주피장자로 추정된 인골의 경우 치아 일부만 남아있었으며 순장자들은 두개골, 상하악, 상지골, 몸통골, 하지골 등 그 상태가 50% 전후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부곽 순장자의 경우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아 그 형태가 고스란히 잘 남아있음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곽 내 주피장자는 순장자들보다 인골의 부식이 심하여 잔존 상태가 훨씬 불량함을 알 수 있고 부곽 순장자들의 인골은 상대적으로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다.

3. 조영EⅢ-8호분(영남대학교박물관 1994 · 2019)

조영EⅢ-8호분은 昌자형의 이혈묘광 주부곽식 목곽묘로서 주곽은 장방형, 부곽은 방형이다. 축조 시기는 5세기 3/4분기 정도이다. 주곽의 목곽 내부에서는 2인의 피장자 인골이 겹쳐진 채 발견되었다. 2인의 피장자 중 1인(주피장자)은 바닥의 동쪽에 머리를 두고 있었는데 두개골만 발견되었고 나머지 뼈들은 남아있지 않았다. 나머지 1인(순장자)은 머리를 서쪽으로 둔 채 주피장자의 위에서 발견되었고 잔존 상태가 양호하였다. 이 순장자의 우측 경골과 髌骨은 동쪽의 토기군 아래로 들어가 있었고, 좌측의 경골과 비골은 남쪽으로 꺾여 있었다. 이 중 주피장자(1번)는 목곽 내부에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여 매장되었으며 3~5세 정도의 어린 아이로 추정된다. 주피장자의 상부에 순장자(2번)를 매장하였는데, 이 순장자는 목곽상부에 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순장자의 머리는 서쪽으로 향하고 있고 연령은 15세 전후로 추정된다.



사진 5. 조영EⅢ-8호 주곽 주피장자 두개골 부근 착장 유물



사진 6. 조영EⅢ-8호 주곽 순장자 인골 매장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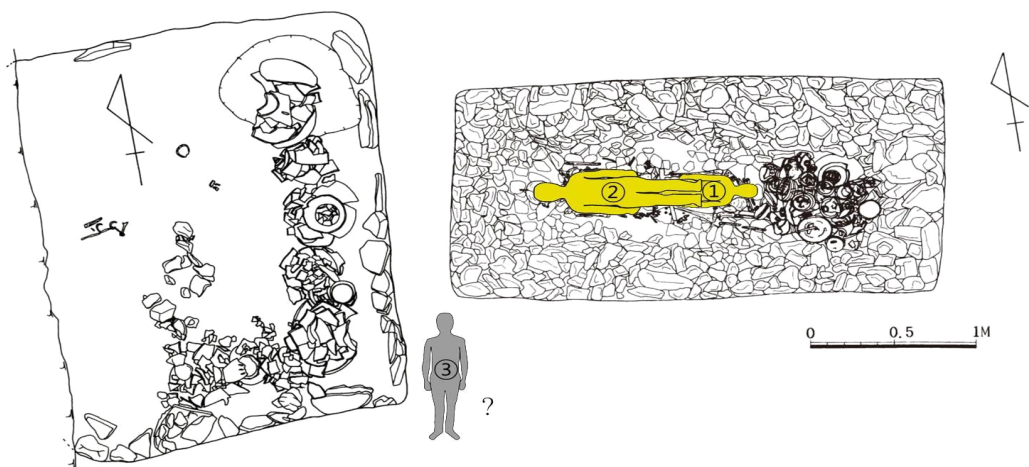


그림 4. 조영EⅢ-8호 인골 매장 양상(모식도)

이 고총의 경우 주피장자(1번)는 3~5세 정도의 어린 아이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인골은 부식되어 없어졌으나 상악 일부와 치아가 확인되었으며 그 주변에서 금동제 태환이식과 경식 등의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이에 비해 순장자는 15세 전후로 목곽상부에 매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개골, 상하악, 몸통골, 하지골, 족골 등 대부분의 인골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잘 남아있었다. 따라서 주피장자의 인골이 순장자보다 훨씬 심하게 부식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그 이유는 주피장자가 매장되기 전에 빈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 조영E I -1호분(영남대학교박물관 2000 · 2019)

조영E I -1호분은 5세기 3/4분기에 축조되었고 임당 고총의 전통적인 묘제인 암광목곽묘이며 이혈포광 昌자형 주부곽식이다. 주곽 내부에는 2구의 인골이 출토되었으나 원래는 3구를 안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3구 가운데 인골이 남아있지 않은 1개체는 목곽의 중앙부에 머리를 남동쪽으로 하여 안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2개체는 머리를 북서쪽으로 하여 안치되어 있다. 머리의 방향이 북서쪽인 피장자의 인골은 모두 두개골편 몇 조각과 치아만 남아있었는데, 하나(제2피장자)는 목곽의 북쪽 모서리에서, 나머지 하나는 서쪽 모서리에서 발견되었다. 이 중 남쪽 순장자(1번)는 여성적이며 21~35세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쪽 순장자(2번)는 성별은 알 수 없었고 21~35세로 추정된다.

부곽에서는 1구의 인골이 발견되었다. 이는 순장자로 판단되는데, 곽의 동쪽 모서리 부근에 머리를 남동으로 하여 누워 있었다. 인골은 비록 많이 부식되었으나 두개골, 양팔뼈, 가슴뼈, 엉덩이뼈, 양다리뼈 등이 모두 남아있었는데, 정연하게 누워 있지 않고 뒤틀린 자세로 노출되었다. 이러한 노출 상태로 보아 이 순장자는 염을 하는 등의 사체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묻힌 것으로 판단된다. 부곽에서 확인된 순장자(3번)의 성별은 알 수 없었으며, 21~35세로 추정된다. 이 순장자의 머리 방향은 주곽 쪽을 향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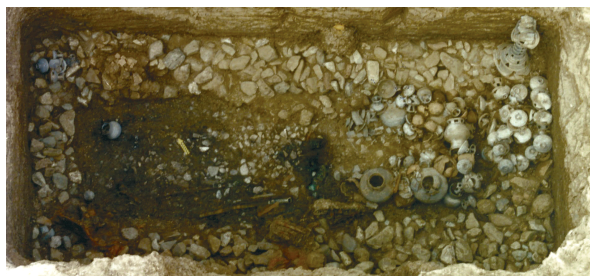


사진 7. 조영E I -1호 주곽 인골 매장 양상



사진 8. 조영E I -1호 부곽 인골 매장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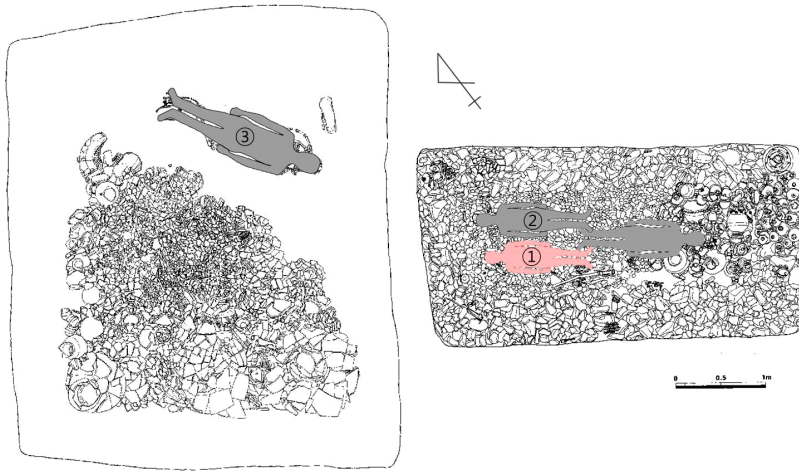


그림 5. 조영E I-1호 인골 매장 양상(모식도)

이 고층에서 확인되는 인골 매장양상의 특징은 주곽은 전혀 도굴되지 않았고 내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피장자의 인골이 완전히 부식되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곽 내 순장자 2명은 모두 21~35세 정도인데 그 상태가 양호하지 않지만 대퇴골, 하지골 족골, 치아가 확인되었다. 부곽 순장자의 경우 정연하지는 않았지만 발굴 당시 두개골, 양팔뼈, 가슴뼈, 엉덩이뼈, 양다리뼈 등이 모두 잘 남아있었다. 따라서 이 고층의 주곽에서도 주피장자의 인골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으나 순장자는 일부 남아있다는 점이 확인되며 부곽의 순장자는 주곽의 인골보다 훨씬 양호함을 알 수 있다.

5. 조영C I-1호분(영남대학교박물관 1999·2019)

조영C I 호분은 조영C I-1호와 조영C I-2호가 순차적으로 축조된 표형분으로 5세기 3/4 분기에 축조되었다. 이 중 조영C I-1호가 선축되었으며 이혈묘광 昌자형 주부곽식으로 주곽이 남쪽에 배치되었다. 주곽 내부에는 3개체의 인골을 안치하였고 많은 유물을 부장하였다. 3개체의 인골 가운데 1개체(제1번 피장자)는 목곽의 중앙부에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안치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2개체는 머리를 서쪽으로 하여 안치되어 있었다. 머리의 방향이 서쪽인 피장자 둘 가운데 하나(제2번 피장자)는 제1번 피장자의 다리뼈와 목곽의 북장벽 사이에, 나머지 하나(제3번 피장자)는 제1번 피장자의 다리뼈와 목곽의 남장벽 사이에 각각 머리가 목곽의 서단벽 가까이에 두고 노출되었다. 유물의 출토상태나 다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제1번 피장자가 주피장자이고, 나머지 2인은 순장자로 판단된다.

주피장자의 인골은 두개골편, 좌측 상완골, 골반편, 좌우측 대퇴골, 좌우측 경골편, 족근골이 남아있었는데 비교적 정연하게 노출되었다. 북장벽측의 순장자(제2번 피장자)는 두개골편, 우측 상완골, 늑골, 우측 대퇴골이 남아있었다. 이 가운데 늑골은 원위치에 있지 않고 대퇴골 부근에 묻혀져 있었다. 이것은 봉토에서부터 뚫린 도굴구 바닥에 해당되므로 이때 교란된 것으로 판단된다. 남장벽측의 순장자(제3번 피장자)는 두개골편, 좌우측 대퇴골만 남아있었다. 형질인류학 조사 결과 주피장자(1번)는 남성이며 31~40세로 추정하였다. 또한 순장자 중 북쪽에 위치한 인골(2번)은 15~18세 정도의 남성으로, 남쪽에 위치한 인골(3번)은 4~8세의 어린이로 추정하였다.

부곽에서는 2개체의 인골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순장자로 판단되는데, 곽의 남동편에 머리를 동으로 하여 나란하게 누워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신전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골 가운데 제4번 피장자(남측 순장자)는 머리를 목곽의 동단벽 가까이 두고 남장벽에 접해 나란하게 누워 있었다. 인골은 두개골과 하악골, 좌우측 상완골, 좌우측 요골과 척골, 골반편, 좌우측 대퇴골, 우측 경골과 비골 등이 남아있었는데 좌측 대퇴골이 흐트러졌을 뿐 비교적 정연하게 노출되었다. 그 북측에 나란하게 누워진 제5번 피장자(북측 순장자)는 두개골, 좌우측 대퇴골, 좌측 경골과 비골이 남아있었다. 비록 목곽의 함몰 시 충격으로 인골들이 원위치를 이탈하였다고 생각되지만 당초 두 순장자를 나란하게 붙여 놓았음이 확실하였다. 부곽에서 확인된 순장자 중 남측 순장자(4번)는 41~60세 정도의 남성으로, 북측 순장자(5번)는 36~50세 정도의 여성으로 추정되었다⁷⁾.



사진 9. 조영C I -1호 주곽 인골 매장 양상



사진 10. 조영C I -1호 주곽 인골 매장 양상

7) 부곽에서 확인된 순장자들에 대한 형질인류학적 분석 결과(영남대학교박물관 2013) 둘 다 남성적으로 추정하였으나 이 인골에 대한 DNA 분석으로 남측 순장자(4번)는 남성으로, 북측 순장자(5번)는 여성으로 추정하였다(정충원 2019; 김대욱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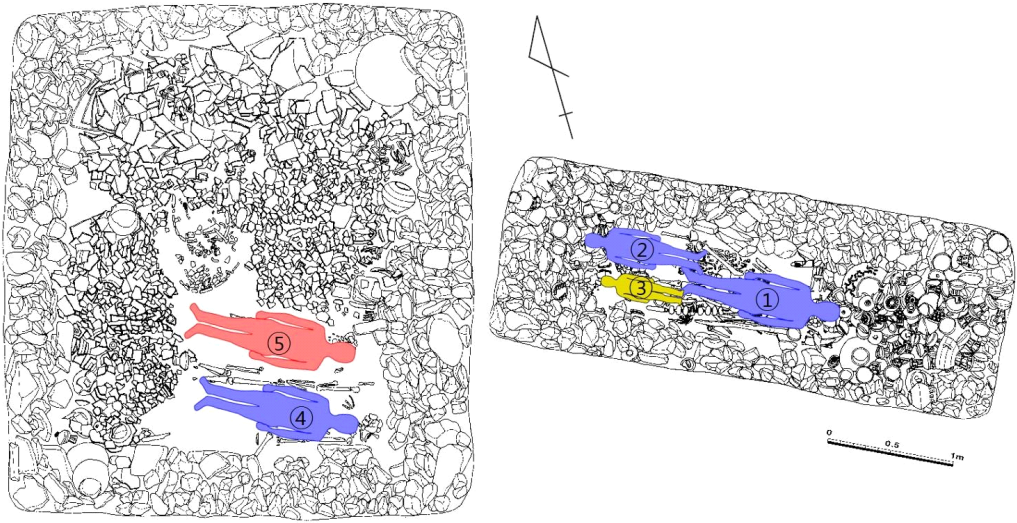


그림 6. 조영C I-1호 인골 매장 양상(모식도)

이 고총의 주피장자는 성인 남성으로 생전에 일부 치아가 결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골은 두개골, 상하악, 상지골, 수골, 몸통골, 하지골, 족골 등 대부분 남아있으나 50% 이상 손실된 경우가 많아 그 잔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이에 반해 같은 공간에서 확인된 순장자 중 15~18세 정도의 남성은 대부분의 뼈가 50% 이상 남아있고 상악과 왼쪽 상완골, 쇄골, 척추, 대퇴골 등은 100% 잔존하고 있어 주피장자와 크게 비교된다. 심지어 4~8세 정도의 순장자 인골도 전체적으로 잘 남아있고 두개골과 상악, 몸통골, 하지골, 족골 등 50%~100% 정도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주피장자의 인골 잔존 상태는 순장자들보다 훨씬 불량함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빈장이 있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6. 조영EⅡ-2호분(영남대학교박물관 2016; 김대옥 2018; 영남대학교박물관 2019)

조영EⅡ-2호는 조영EⅡ호분 내에 축조된 4개의 고총 가운데 하나로 임당 고총의 전형적인 형태인 ㅁ자형 주부곽식 암광목곽묘이다. 주곽은 장방형, 부곽은 방형에 가깝게 축조하였으며 그 축조 시기는 5세기 말경으로 추정된다. 조영EⅡ-2호 주곽에는 총 3개체의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이 무덤의 주피장자는 무덤의 중앙에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금동관 1점, 금동제태환이식 1쌍과 곡옥부수식 1쌍, 곡옥부경식 1조, 은제과대와 수

하식 1조, 은제지환을 양 손에 4점씩, 금동제식리 1쌍 등 주피장자의 위계를 상징하는 위세품을 착용한 채 매장되었다. 주피장자의 인골은 양쪽 대퇴골 일부만 남아있고 대부분 썩어 없어졌다.

반면 순장자는 주피장자의 양쪽에 한명씩 매장되었는데, 머리를 동쪽으로 한 순장자(1번 인골)는 그 나이가 15세~18세 정도로 추정되며 머리를 서쪽으로 한 순장자(2번 인골)은 7.5세~12.5세 정도로 1번 순장자보다 다소 어린 것으로 보았다. 이 두 인골(1번과 2번)은 각각 비슷한 형태의 은제태환이식을 착용하였으며 두 인골의 잔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었다.



<사진 11> 조영티II-2호 주곽 인골 매장 양상



사진 12. 조영티II-2호 주곽 주피장자
두개골 부근 착장 유물



사진 13. 조영티II-2호 주곽 순장자들
하지골



사진 14. 조영EII-2호 주피장자 인골 잔존 상태



사진 15. 조영EII-2호 순장자(1번) 인골 잔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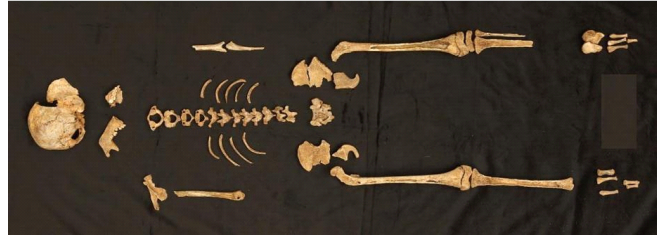


사진 16. 조영EII-2호 순장자(2번) 인골 잔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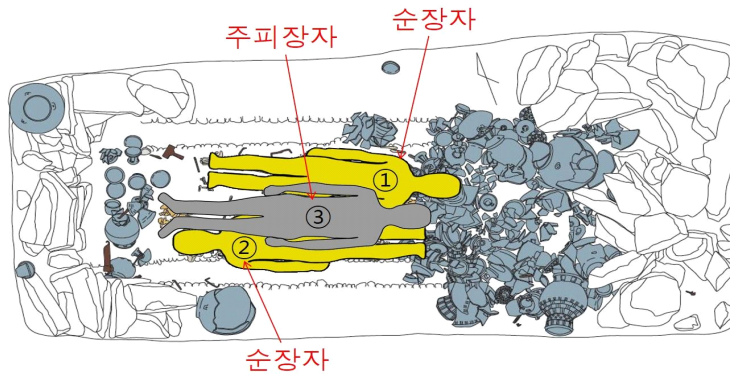


그림 7. 조영EII-2호 인골 매장 양상(모식도)

이러한 양상을 통해 동일한 시점과 동일한 환경에 매장된 3개체의 인골 중에서 7.5세~12.5세 전후의 인골(1번 순장자)과 15세~18세의 인골(2번 순장자)은 그 형태를 거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남아있지만 주피장자인 성인의 뼈만 유독 심하게 부식되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 고총의 주피장자가 무덤에 매장되기 전에 이미 일정 기간동안 빈이 시행되었고 사체의 대부분이 썩었거나 썩기 시작한 이후에 매장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무덤의 주피장자가 죽은 후에 일정 기간 빈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무덤 축조 공정이 완료된 후 무덤 내에 매장될 시점에 순장자들과 함께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순장자들은 주피장자가 죽은 시점이 아니라 무덤 축조 공정이 완료된 이후 주피장자가 매장될 시점에 함께 순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7. 경산 대동 57-1번지 유적 내 고총(진흥문화재연구원 2017)

경산 대동 27-1번지 유적은 사적 516호인 임당동고분군의 동쪽 경계지점에 위치한 유적으로 임당1호분의 북동쪽에 인접한다. 조사 전 봉토는 건물 축조 등으로 삭평되었으나, 임당 고총의 전통적인 묘제인 암광목곽묘이며 이혈묘광 昌자형 주부곽식이다. 축조 시기는 5세기 4/4분기 정도로 추정된다.

주곽에는 금동관모편, 금제수식, 백화수피 관모편(?), 은제허리띠 등을 착장한 주피장자와 4명의 순장자가 확인되었다. 주피장자는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반듯이 누워 있었으며 순장자는 피장자와 동일한 방향으로 2명(D와 E), 반대 방향으로 2명(B와 C)이 안치되어 있었다. 인골 분석 결과 주피장자(A인골)는 사랑니의 맹출이 채 끝나지 않은 10대 후반의 남성이고, 순장자의 연령도 그리 높지는 않아서 두 개체(C와 E)는 청년(25~35/20~25세)에 해당하는 성인이며 나머지 두 개체는 각각 10세 가량(D)과 10대 전반(B)인 어린이로 동정하였다.⁸⁾



그림 8. 주곽의 인골 출토 상황
(A인골: 주피장자, B·C·D·E인골: 순장자)
(출처: 진흥문화재연구원 2017: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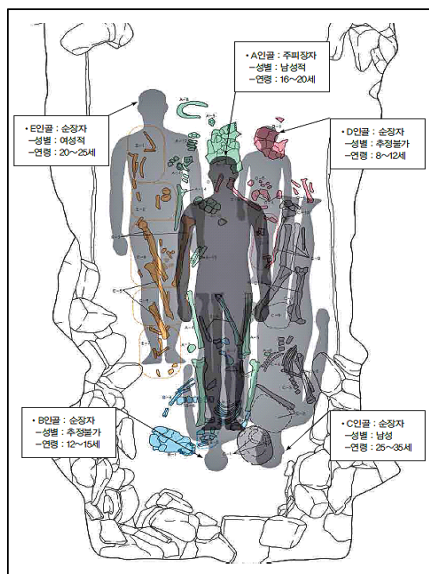


그림 9. 주곽의 피장자 배치 복원 결과
(출처: 진흥문화재연구원 2017:250)

8) 이 유적 출토 인골에 대한 분석은 하대룡(2017)의 분석 결과와 사진, 도면을 참조하였다(진흥문화재연구원 2017).



사진 17. A인골의
잔존 상태(출처:
진흥문화재연구원
2017: p.262)



사진 18. B인골의
잔존 상태(출처:
진흥문화재연구원
2017: p.263)



사진 19. C인골의
잔존 상태(출처:
진흥문화재연구원
2017: p.263)



사진 20. D인골의
잔존 상태(출처:
진흥문화재연구원
2017: p.264)



사진 21. E인골의
잔존 상태(출처:
진흥문화재연구원
2017: p.265)

하지만, 이들의 인골 잔존 상태는 각각 달라서 주피장자의 경우 상반신은 두개골, 척추, 그리고 사지골 정도가 잔존하였고 늑골과 골반은 유실되었는데 허리에 해당하는 부위는 다소 공백이 생긴 상태였다. 하반신은 대퇴골과 경골, 슬개골이 정연하게 출토되었다. 이에 비해 순장자 B는 경골과 족골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위가 잔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무릎 이하의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잔존하였다. 순장자 C도 전반적인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왼쪽 팔과 손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잔존하였다. 순장자 D도 전반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왼쪽 팔 부위와 손 부위를 제외하면 비교적 큰 결실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순장자 E의 경우에는 두개골이 결실되었고 사지골의 결실도 많아 주곽 출토 인골 중에서 보존상태가 가장 좋지 못한 편인데, 이는 이 인골 주변으로 무덤 내부가 일부 파괴되거나 후대의 교란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피장자의 인골 상태가 불량한 것에 비해 순장자들의 인골은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다.

IV. 殯의 목적과 殯殿의 위치

빈이 시행되는 기간은 장례를 주관하는 집단의 사정이나 목적, 死者의 사회적 위치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빈이 시행되어야 한다면 그 목적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빈의 목적에 대해서는 사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소생기원설(韓相福·全京秀 1961; 五來重 1992), 죽음 내지 시신에 대한 공포에서 死者와의 단절을 목적으로 하는 진혼봉쇄설(吉野裕子 1972), 또는 무덤 축조에 소요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살을 썩히기 위해, 후계자 계승 문제, 중국

상장제의 영향 등(권오영 2000)을 언급하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여러 가능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갑작스런 또는 예고되지 않은 죽음이 발생했을 때 무덤 축조에 소요되는 시간과 무덤 내에 부장할 많은 양의 유물⁹⁾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제사토기나 저장용 토기에 담긴 그 많은 제사음식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임당 고총 주곽에 부장되는 유물은 제사를 위한 유물로, 부곽에 부장되는 유물은 주피장자가 사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장해 준 사후 생활유물로 정의할 수 있다(김용성 2008: p.163-176; 김대욱 2014: p.86-90). 이러한 유물은 주피장자가 생전에 수집하였거나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주피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의례를 위하여 수집하거나 제작된 것도 있다. 즉 주곽에 부장되는 유물은 주피장자의 장례를 위해 짧은 시간 안에 새로 만들거나 구입한 것이며 부곽에 부장되는 유물은 주피장자가 생전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따라서 매장 의례에 사용될 유물을 수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하여야 할 것이 임당 고총 주곽과 부곽에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양의 장례 음식이 부장되었다¹¹⁾는 사실이다. 즉 임당 고총의 주곽과 부곽에는 사슴 科, 개, 돼지, 토끼 科, 쥐 科, 말, 소, 곰(치아) 등 다양한 포유류와 꿩 科, 기러기 屬, 두루미 科, 느시 科, 오리 屬, 고니 屬 등 많은 양의 조류, 잉어, 붕어 등의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상어류, 방어, 참돔, 복어, 상어 등의 바다 생선, 조개, 소라, 고둥 등의 각종 패류를 제사유물 또는 사후 생활유물로 부장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복숭아, 살구, 고욤 등의 과일과 쌀, 조, 피 등의 곡물도 함께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덤에 부장되는 음식물을 사후에 바로 수급할 수 있었을까? 포유류나 조류의 경우 이들이 사육된 것인지 야생의 것인지는 차치해 두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의 제사음식을 확보하려면 짧은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은 장례를 위해 미리 들여와서 오랜 시간 저장해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 많은

9) 고총 발굴에서 확인되는 많은 양의 각종 토기류와 철제 무기류, 장신구 등 부장유물을 말한다.
 10)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장례가 발생한 후에 당시의 제사의례에 따라 필요한 양의 제사 그릇을 구입하거나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갑작스런 죽음이 발생하면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11) 최근 영남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임당유적에서 출토 동물유존체에 대한 분석(서울대학교 동물고고학연구실 : 책임자 이준정 교수, 연구원 고은별·김은영)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 I·II』(2017·2018)를 통해 보고하였다. 발굴을 통해 확보한 수천 점의 동물유존체에 대하여 먼저 조류와 포유류, 어류와 패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 출토위치를 기록하고 종을 구분하였으며 그 부위를 찾아 길이를 측정하였다. 현재 이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양의 바다 음식물을 확보하는 데에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죽음이 예상되거나 죽음을 당하였을 때,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에 필요한 각종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 중에서 바다에서 생산되는 장례음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주나 포항, 심지어 남해안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 와서 음식을 장만하였을 것이다. 때를 잘 만나 쉽게 음식물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상 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마련한 음식은 상하지 않도록 내장을 손질하고 소금이나 바닷물에 절여 운송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말이나 마차를 이용하였더라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도보로 다녔다면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죽음이 발생하면 장례에 필요한 용기를 비롯한 각종 제사용 품과 의례에 사용할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을 것이고 이것들을 다 마련한 뒤에야 비로소 사체를 무덤 내부에 매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죽음이 발생한 후 최종 매장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이 기간이 바로 주피장자의 빈이 행해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빈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외래의 물품을 구해오거나 각종 부의품이 전달되기도 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무덤에 부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빈의 목적도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빈은 사자를 소생시키거나 죽음 또는 시신에 대한 공포에서 사자와 단절하기 위한 심리적·종교적인 이유에서 시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덤에 부장되거나 의례에 소요되는 부장품과 음식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실질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殯殿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고대 경산에서 빈이 시행되었음을 추론하였는데, 그렇다면 빈전은 어디에 마련하였을까?

연구사 검토에서 공주 정지산유적의 발굴로 인해 이 유적이 6세기 백제 왕실에서 빈을 시행한 殯殿으로 간주되었지만, 이에 대한 비판 또한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런가 하면 백제 석촌동4호분 주변 수혈유구가 빈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권오영 2000). 하지만 백제 석촌동4호분 주변 수혈유구는 그 배치형태나 유물 출토양상을 통해 볼 때 빈전의 형태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이희준 2000). 공주 수촌리 적석유구의 경우 입지와 유구의 형태, 장고형기대편과 대형토기편, 대옹편 등이 내부에서 확인된 점으로 보아 제사 혹은 빈 등의 의례시설로 추정(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14: p.157)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송산리고분군이나 수촌리고분군의 적석유구는 무덤군 한쪽에 치우쳐 위치하고, 후자에서는 반복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어 이러한 적석유구를 개별 무덤이 조성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의례 행위가 이루어진 殯斂 의례 공간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이남석·이현숙 2016: p.331).

고려시대 국왕의 빈전은 宣德殿에 가장 자주 설치되었는데, 불교의 서방정토 관념에 따라 궁궐 내 서쪽 건물에 안치한 것으로 이해(김인호 2010)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국왕의 빈전이 설치된 장소는 일정하지 않지만 왕이 승하한 장소 인근에 설치된 경우가 많았는데(신지혜 2010), 이는 아침저녁으로 빈궁에서啼을 하고 上食을 올리는 의례가 매일, 그리고 朔望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동선이나 공간을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조재모 2013)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전이 설치된 장소는 후왕이 이동하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인 왕궁 내부의 어떤 장소에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이병호 2017b). 이러한 관장에서 보면 고대의 빈전도 왕궁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¹²⁾.

또 하나 염두해야 할 것은 빈전이 마련되는 공간은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썩어가는 시신을 장시간 보관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야생동물의 위협에서도 안전하고 시신의 부패로 인한 악취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또 시신을 매장할 무덤의 위치와 너무 멀지 않은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하며, 빈을 시행하는 동안 공동체 구성원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의례를 행할 때에 지배층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특히 피지배층들에게는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빈전은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켜야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임당유적 내에 토성이 빈전이 있었을만한 유력한 장소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임당 토성은 그 공간이 협소하여 순수한 방어취락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관아가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 하지만 이 토성의 바로 남쪽과 동쪽에 인접하여 대규모 고총군이 축조되어 있고, 북쪽과 동쪽으로 펼쳐진 넓은 들이 관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공간 내에 빈전이 위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즉 임당 토성의 입지상의 특징을 보면 고대 경산사람들의 주 생활터로 추정되는 임당들이 흔히 내려다보이는 동시에 임당들에서 보면 이 구릉 위에 돌출되고 편평한 부분이 있어 이곳에서 특정한 의례가 진행된다면 아주 권위적인 의례 공간으로 느껴지게 되었을 것이다¹³⁾.

12) 고대 경산의 경우 임당유적의 주구부건물지가 빈전일 가능성이 있다(권오영 2000)고 보았으나 임당유적 주구부건물지는 고분의 축조 시기와 맞지 않으며 개·보수와 중수의 흔적이 있어 창고와 같은 고상건물지일 가능성을 지적(이희준 2000)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 물론 이 부분은 아직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비교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며 토성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있어야만 확정할 수 있는 가설에 불과하므로 향후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본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경산 임당 고총에서 확인된 인골 매장양상을 통해 신라 지방 고총에서 빈장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함으로서 맺음말에 대하고자 한다.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에는 다수의 고총이 축조되었는데, 그 중에서 피장자의 위치나 두향 등 인골 매장과 유물 부장양상을 통해 주피장자와 순장자를 구분하였다. 즉 주피장자는 주로 남(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금동관, 경식, 금동제태환이식, 은제과대, 은제지환, 금동제식리 등 각종 복식유물과 함께 매장되었으며, 순장자는 주로 그 옆이나 반대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이식, 도자 등을 착장하였다. 그러나 주피장자와 순장자들이 동일한 시점과 환경에 매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피장자의 인골이 순장자들의 인골보다 훨씬 심하게 부식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주피장자가 무덤 내에 묻히기 전에 일정 기간동안 殯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의 빈은 死者를 소생시키거나 죽음 또는 시신에 대한 공포에서 사자와 단절하기 위한 심리적·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무덤에 부장되거나 의례에 소요되는 부장품과 음식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임당 고총의 빈전은 임당 토성 내부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참고문헌

- 『周書』권49 백제전
『北史』권94 백제전
『隋書』권81 백제전
『隋書』권81 고구려전
강소영·지상현, 2012, 「고인골 발굴 현장에서 실험실까지」 『발굴 현장에서 고인골 분석 연구
실까지』
경산시립박물관, 2011, 『압독국의 왕 ‘干’, 영원불멸을 꿈꾸다』
국립공주박물관, 1999, 『정지산』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권오영, 2000, 「고대 한국의 喪葬儀禮」 『고대 한국인의 정신세계』
吉野裕子, 1972, 「喪屋」 『祭りの原理』
김길식, 2001, 「빙고를 통해 본 공주 정지산유적의 성격」 『考古學誌』12
_____, 2002, 「고대의 빙고와 상장례」 『韓國考古學報』47
김대욱, 2013, 「경산 임당유적 고총 순장자의 성격」 『民族文化論叢』제55집
_____, 2014, 「임당 고총의 축조와 그 장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8, 「경산 조영EⅡ-2호분으로 본 신라 지방 고총의 殯葬 가능성」 『한국고대사탐구』28
_____, 2019, 「임당 고총에서 확인된 가족 순장」 『고대 인골 연구와 압독국 사람들』
(학술세미나 자료집)
김용성, 1998, 『신라의 고총과 지역집단-대구경산의 예-』
_____, 2002, 「新羅高塚의 殉葬」 『古文化』59, 한국대학박물관협회
_____, 2008, 「임당 고총의 장제」 『한국 고대사 속의 경산』jd은
김인호, 2010, 「고려시대 국왕의 장례절차와 특징」 『韓國中世史研究』29
나희라, 2008,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巫鴻(김병준 역), 2001, 「종묘, 궁전 그리고 무덤」 『순간과 영원』
楊寬(장인성·임대희 역), 2005, 『중국 역대 능침 제도』
신상언, 2017, 「학제간 융합연구 1)나주 정촌고분 출토 파리유체의 법의곤충학적 분석」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신지혜, 2010, 「조선 숙종대 왕실 상장례 설행 공간의 건축 특성」(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박물관, 1994,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Ⅱ-조영EⅢ-8호분 외-』
_____, 1999,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Ⅳ-조영CⅠ·Ⅱ호분-』

- _____, 2000,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Ⅴ-조영EⅠ호분-』
- _____, 2012,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Ⅸ-조영EⅢ-2호분-』
- _____, 2013,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인골연구자료집』
- _____, 2016,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ⅩⅢ-조영EⅡ-2호분-』
- _____, 2017,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Ⅰ-포유류·조류-』
- _____, 2018,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Ⅱ-어류·패류-』
- _____, 2019,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고인골』
- 五來重, 1992, 『葬と供養』
- 우은진, 2019, 「고대 압록국 사람 뼈 집단의 생물인류학적 특성 복원」 『고대 인골 연구와 압록국 사람들』(학술세미나 자료집)
- 우은진·정양승, 2015,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대규모 인골집단의 성, 연령 추정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증」 『야외고고학』제24호
- 우은진·정현우, 2016, 「삼국시대 경산 임당유적 출토 사람뼈 집단의 치아 병리 양상」 『대한체질인류학회지』제29권제1호
- 이남석, 1999, 「정지산유적의 성격에 대한 검토」 『정지산』
- 이남석·이현숙, 2016, 「백제 상주의례의 연구」 『百濟文化』54
- 이병호, 2017a, 「공주지역 백제 수막새의 특징과 계통」(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발표문)
- _____, 2017b, 「백제 왕실의 조상 제사 변천에 대한 시론」 『동아시아 종교와 무덤제사의 비교고고학』
- 이준정 외, 2008, 「경산 임당 유적 고총군 피장자 집단의 성격 연구-출토 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68
- 이한상, 2012, 「발굴에서 해석까지-정지산유적의 사례-」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
- 이희준, 2000, 「『고대 한국의 喪葬儀禮』에 대한 토론」 『고대 한국인의 정신세계』
- 정종수, 1994, 「조선초기 상주의례 연구」(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재모, 2013, 「조선시대 국장의 절차와 공간이용」 『대한건축학회논문집』29권2호(통권292)
- 정충원, 2019, 「고대 압록국 사람들의 DNA 분석」 『고대 인골 연구와 압록국 사람들』(학술세미나 자료집)
- 진흥문화재연구원, 2017, 「Ⅲ.1. 경산 대동 57-1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경북2-』(한국문화재재단)
- 채미하, 2012, 「한국 고대인의 죽음과 喪·祭禮」 『고대 한국인의 정신세계』, 2000
-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14, 『공주 수촌리고분군Ⅱ』
- 坂本 稔, 2014, 「韓國造永洞古墳群出土人骨の炭素14年代測定」 『繼往開來』第13號

- 하대룡, 2011, 「경산 임당 유적 신라 고분의 순장자 신분 연구-출토 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 하대룡, 2017, 「경산 대동 57-1번지 유적 출토 인골 분석」『경산 대동 57-1번지 유적』
- 韓相福·全京秀, 1961, 「二重葬制와 人間의 精神性」『韓國文化人類學』2
- 和田萃, 1995, 「殯の基礎的考察」『日本古代の儀禮と祭祀・信仰』(上)
- 黃曉芬(김용성 역), 2006, 『한대의 무덤과 그 제사의 기원』
- Hyunwoo Jung · Eun Jin Woo, 2016, 「Artificial deformation versus normal variation: re-examination of artificially deformed crania in ancient Korea populations」『The Anthropological Society of Nippon』.
- T.더글라스 프라이스(이희준 옮김), 2013, 『고고학의 방법과 실제』

【Abstract】

The Possibility of Temporary Interment Rites at the High Mounded Tombs of Silla's Local Areas

– the Example of the High Mounded Tombs of the Imdang Site –

Kim Daewook*

The possibility that temporary interment rites may have taken place at the high mounded tombs of Silla's local areas, based on the evidence from the high mounded tombs of the Imdang site, is considered in this article. In an earlier study undertaken on Tomb EII-2 of the Joyoung-dong site, Gyeongsan, the author made a distinction between the primary deceased individual for whom the tomb had been built and sacrificed individual burials, and proposed that temporary interment rites had taken place for the primary deceased individual. In order to establish whether or not this phenomenon was a extraordinary practice, analysis was undertaken on other examples of high mounded tombs located in Gyeongsan. As similar phenomena were identified at numerous other tombs, it was proposed that temporary interment rites may have been a regular practice.

Numerous tombs were constructed in the burial grounds of Imdang and Joyoung-dong, Gyeongsan. The human remains from these tombs have recently been analysed and their archaeological implications presented. It was possible to differentiate, based on the orientation and position of the deceased, as well as the nature of the deceased, between the primary deceased individual and sacrificed individuals.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deceased's head orientation was mainly to the south(east) and gilt-gold crowns and necklaces, gold earrings with thick rings, silver belt ornaments, silver finger rings, and gilt-gold shoes were buried as grave goods. In the case of the latter, individuals were placed next to or with their heads orientated in the direction opposite to the primary deceased and were fitted with earrings and hand knives. However, it was frequently observed that although the primary deceased individual and the individuals of the sacrificial burials had supposedly been buried at the same time and within the same context, the remains of the former had been heavily decomposed at the time of burial, compared to the latter.

The author interpreted this phenomenon as having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 primary deceased individual had been temporarily interr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efore finally being put to rest at the tomb. It was also proposed that temporary interment rites were undertaken not only for religious and psychological purposes (as a means of cutting off ties with the deceased which derived from the fear of death or the fear that the deceased would come back to life) but

* Yeungnam University Museum

also in order to obtain the time required to acquire the goods and foodstuffs buried in the tombs or consumed as part of funerary rituals.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site of temporary interment may have been located within Imdang Toseong Fortress.

Key words : Imdang high mounded tombs, Human remains, Primary deceased individual,
Sacrificed individual, Temporary interment, Site of temporary interment